

사회

# 해경 고무탄에 불법조업 中 선원 사망

## 홍도 해상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의 선원이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졌다.  
16일 오후 3시45분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90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중이던 중국 석도선적 100t급 쌍타망어선의 중국인 선원 장모(44)씨가 단속을 나선 목포해경 소속 3009함 대원이 쏜 고무탄에 맞았다.

장씨는 곧바로 응급처치를 받은 뒤, 헬기로 목포의 한국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후 6시께 숨졌다.  
해경에 따르면 목포해경 3009함은 이날 오후 3시10분께 불법조업중인 중국어선 30여척을 발견, 검문검색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선원은 쇠톱, 칼 등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해경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선원들 하체를 겨냥해 발사한 비살상용 고무탄이 장씨의 왼쪽 가슴에 맞았다.  
해경은 "정당한 법 집행과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해 단속 대원의 생명을 위협을 느껴서 진압 장구들을 사용했다"며 "장씨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 됐다"고 전했다.

한경 정부는 지난 2008년 9월 목포해경 소속 박경조 경위가 중국선원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바다로 추락해 사망한 데 이어 2011년 12월 중국어선 투원위호의 청다웨이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해경 이창호 경사가 숨지자,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대응을 천명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학교폭력·왕따보다 더 심각한 '은따'

(은근한 따돌림)

폭행, 금품갈취 등 물리적인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틈을 타 이른바 '은따'(은근한 따돌림)가 발생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은근한 따돌림은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학생은 있으나, 물리적인 폭행이 없는 탓에 정작 가해자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더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남 C고교 1학년 학생의 학부모 A씨는 16일 "딸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언어 폭행과 따돌림을 당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 국정감사 중인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50분께 함께 온 또다른 학교폭력 피해 부모와 국정감사장에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교육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자신의 딸이 친구 7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재수 없다", "애들이 다 너를 싫어한다", "죽여버린다"는 말과 각종 조롱과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교측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진상조사를 벌인 해당 학교측은 학교폭력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꼭 학교폭력을 당해야만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위를 여는 지 도대체 학교측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해 학생들



전남 지역 한 고교의 학부모들이 16일 오전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될 광주시교육청 현관에서 박인숙(왼쪽)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뚜렷한 가해자 없는 외면·냉대 피해학생들 정신병 입원까지 광주·전남 교사들 속수무책

을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학교측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이달초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학년 해당급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등을 벌였는데도, 학교 폭력이 이뤄졌다고 진술한 학생이 전무했다는 것이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학부모와

학교폭력 대책반이 해당 학교 1,2,3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음에도 뚜렷한 학교폭력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내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A씨와 함께 광주시교육청을 방문한 이 학교의 또 다른 학부모도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음에도 학교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만 있고 가해자나 심지어 학교 내에서 목격자도 없는 은따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광주·전남 지역 학교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실뱀장어 원산지 속여 43억채킨 일당 넷 구속

값싼 필리핀·유럽산 뱀장어 치어를 이보다 훨씬 비싼 한·중·일 등 극동산으로 속여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등)로 김모(39)씨 등 4명이 16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뱀장어에 가담한 박모(45)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 1부(김주원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2~5월 필리핀이나 유럽에서 수입한 치어를 극동산으로 속여 팔아 4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중·일에서 잡힌 극동산 치어는 kg당 1000만~1500만원이었지만 필리핀

산은 약 30만원, 유럽산은 약 200만원에 불과했다.  
김씨 등은 홍콩에 치어 대금을 송금받을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고 필리핀 등에서 값싼 치어를 사들여 홍콩을 거쳐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종을 육안으로만 확인하는 허술한 통관절차가 범행에 이용됐다. 이들은 양어장이 아닌 홍콩의 택시 승강장에서 치어의 품종, 상태, 마릿수 등도 확인하지 않은 채 유럽산 치어를 받아 국내에 공급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거액 횡령 장흥 무산김 전 대표 등 구속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장흥 무산김 주식회사 시설물 시공과 관련해 건설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무산김(주) 전 대표이사 송모(62)씨와 장흥군청 해양수산과 직원 위모(46·시실7급)씨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16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장흥군 관산을 송촌리 소재 무산김(주) 초대 사장으로 지난 2009년에 15억원 규모의 저온저장고 시설, 2010년에 4억5000만원이 소요된 친환경 물류

기지 기반시설과 15억원이 투자된 '조미김' 가공공장 건립과정에서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5억9000만원을 빌리는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위씨는 지난 2010년에 무산김(주)회사에 수산업 기업화 품목 홍보물 제작 보조금 지원과정에서 2400만원을 횡령하고 무산김 대표인 송모씨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으로 24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주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 학교 집단폭행 목포 동영상은 '생일빵'

유튜브에 오른 교실 집단폭행 영상 속 장면(본보 10월 16일자 6면)은 친구들간 생일 이벤트인 것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6일 "유튜브에 '도와줘'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영상의 촬영경위를 조사한 결과 생일에

친한 친구들끼리 하는 축하 이벤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학교폭력 여부를 더 조사하고 게시자를 찾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비리 연루 전남 총경 들 직위 해제·대기 발령

경찰청은 이른바 '할바 비리'에 연루된 전남경찰청 A 총경을 지난 15일자로 직위 해제했다. A 총경은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6월 사직서를 냈으나 반려돼 대기발령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또 경찰청은 부하 직원의 수억원대 공금횡령 사건에 연루된 전남지방청 총경 B 과장도 같은 날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은 B 과장이 전남 지역 모 경찰서 재임 당시 경찰 수련원 기쁨값 2억여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은 직원으로부터 돈을 상납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중이다. B 과장 자리에 '함명 파동'으로 파면됐다가 복직한 채수창 총경이 임명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나원침 (8669) 김중두



# 강진원 강진군수 무혐의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4·11총선과 함께 치러졌던 강진군수 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았던 민주통합당 강진원 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최근 선거 당시 강후보 주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P씨가 불법으로 모바일 투표자들을 모집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그러나 강 군수는 혐의가 없어 무혐의 처분됐다. /남철화기자 chou@kwangju.co.kr

# "환경미화원 취직" 미끼 금품 뜯어

○전남지방경찰청은 16일 자녀를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지인들에게 금품을 뜯은 혐의(알선수재)로 전 목포시청 청소차량 운전원(기능 8급) 강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6월 3일 최모(69)씨에게 "윗선에게 명절 인사를 해야한다"며 상차당 30만원 상당의 조기 20상자를 받는 등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4명으로부터 15회에 3140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다.  
○강씨는 또 지난해 6월 26일 읍주운전으로 공무원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면직된 이후에도 지인들에게 "자녀를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판명.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충장로 1가입구 탐앤탐스 8층

# 6기비기 하우스

barbecue restaurant

## 즉석바베큐 & 다양한샐러드바

환영합니다  
웨이팅하우스는 즉석 바베큐와 다양한 샐러드바 부담없는 가격으로 마음껏 즐길수 있으며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 친구와 함께 행복을 나눌수 있는 공간입니다.

- 평일 점심 ₩12,900
- 평일 저녁 ₩14,900
- 주말, 공휴일 ₩15,900
- 미취학아동 ₩6,000
- 초등학생 ₩9,900
- 영업시간 : AM 11:30 ~ PM 10:00시

예약문의 226-0003

■ 주차인세 : ●승용차 이용시-건물 지하주차장 이용(인선 1주차장)  
●승합차 이용시-인선 2주차장 이용(인선1주차장에서 30m에 떨어져 있음)

# 태양광발전 주택보급

## 농협 1년거치 5년 상환 자기부담 전액응자

한번의 선택으로 30년간 전기요금 걱정을 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국내산 인증품 모듈로 시공해 드리며 검수는 한전전기안전공사에서..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주택
- 누진세 때문에 걱정되는 주택
- 신축중이거나 신축예정된 주택은 물량부족, 미리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 관리공단 수요공급부족으로 신청을 했는데 태양광 설치를 못하고 있는 주택
-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시공가능
- 2013년부터는 태양광전문기업에서 자체사업추진 예정이며보조대신 용자사업으로 대체예정임
-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다음달로 저축해서 (여름이나 겨울에)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량(kwh)	요금(원)
100	7,010
200	21,230
300	42,370
400	75,270
500	124,310
600	207,470
700	284,480
800	361,490
1000	515,510

주최: 태양광발전 전액요금  
2012년 9월 6일 전기요금 계량안

상문의 (주)셈 에너지 광주지점  
광주 동북부지역 062-528-3070 019-655-5678  
전남 남서부지역 061-727-2371 019-624-2371